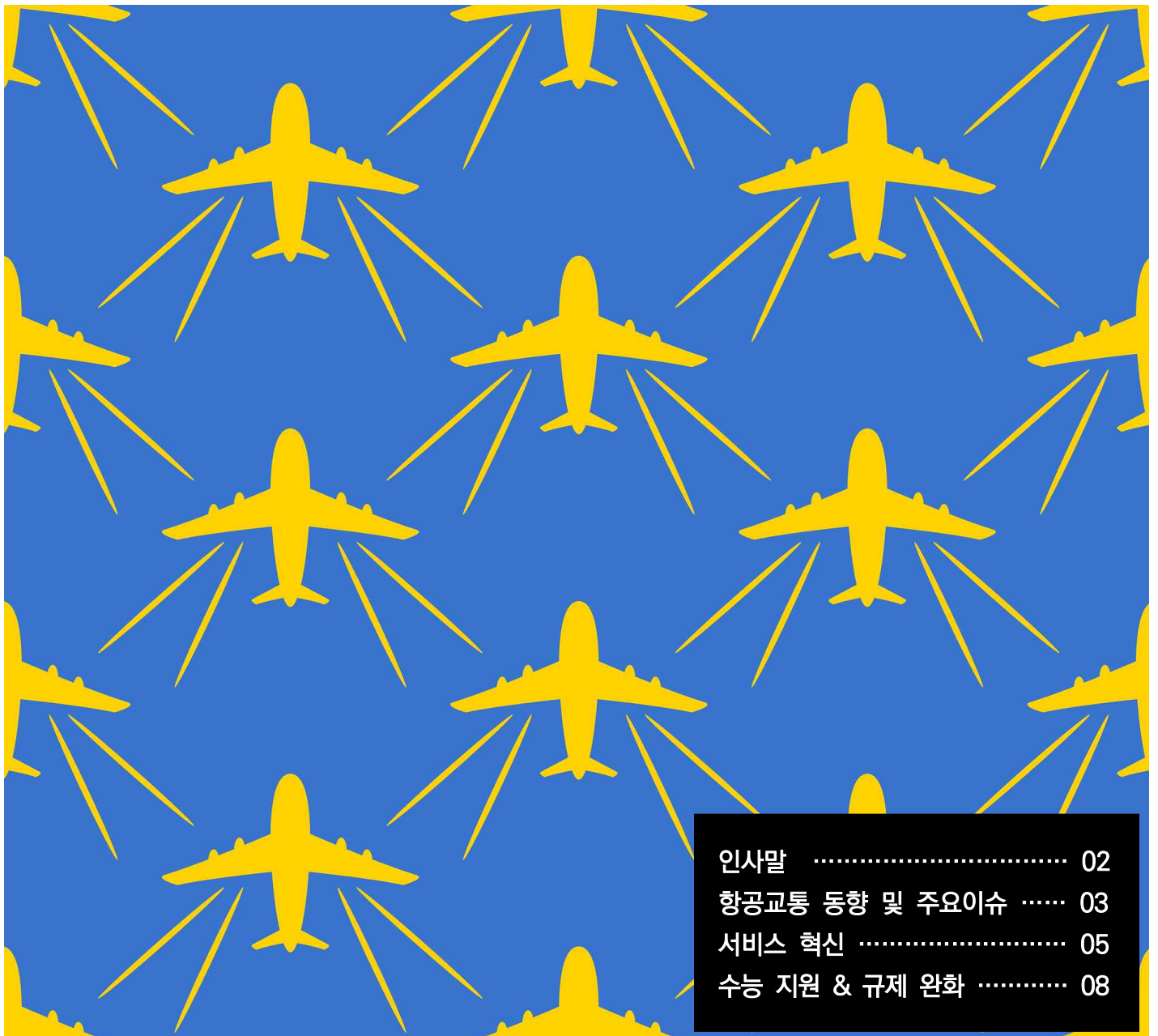


『 샘: 』 항공교통본부 NEWSLETTER

2020.11./ No.01

S afety
E fficiency
M asterpiece

항공안전과 효율의 源泉(샘), 명품기관 항공교통본부!



인사말	02
항공교통 동향 및 주요이슈	03
서비스 혁신	05
수능 지원 & 규제 완화	08

글로벌 명품 기관으로의 도약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장만희입니다.

금번 우리기관 소식지 [샘] NEWSLETTER 발간을 통하여 항공교통본부를 알리고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항공교통 현장의 안전과 항공교통흐름관리, 항공로 관제, 공역관리, 항공정보업무 등 항공교통분야 현장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1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기반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 안전확보와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생활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명품 항공교통기관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디자인과 품질이 뛰어나고 희소가치가 있는 사물, 즉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정성과 혼을 담아 수행하며,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품조직’ 일 것입니다.

우리 본부는 앞으로 ① 현장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시스템적 안전관리와 인적과실 예방을 통한 안전증진, ② 공군,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탄력적 공역운영, ③ 현재의 공역 수용량을 최대로 활용하되 지속 증대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접국가 협력을 통한 원활한 흐름관리 시행, ④ 24시간 무중단 항행안전시설 운영과 위성기반 항행시설 본격운영 대비, ⑤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조직건설을 실현함으로써 항공분야의 최고 명품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0년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多事多難’ 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생활이 제약받고 특히, 우리 본부의 주요 고객인 항공사의 운영상 어려움이 컸습니다.

우리 본부는 단축항공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을 통하여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분간 어려움은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교통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가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교통본부장 **장 만 희**

<통계로 보는 항공교통 동향>

항공교통흐름관리(ATFM)를 통한 지연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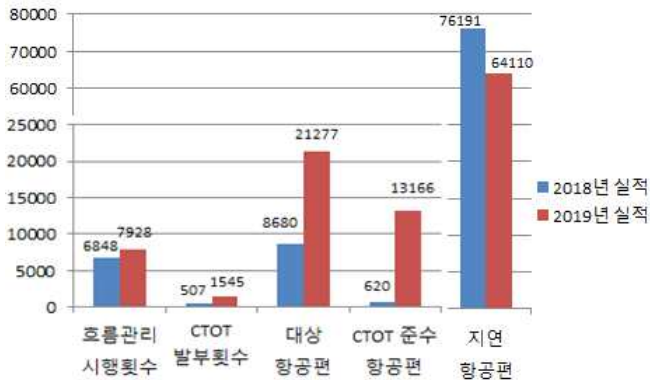
2019년도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실적 분석 결과, 연간 약 23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에 따른 항공이용객 시간 절약 및 연료절감 기준 추산치로, 세부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항공교통흐름관리 시행 : 7,928건(전년 대비 15.8% ↑)
- 2) 조정이륙시간(CTOT*) 발부 : 1,545건(전년 대비 200% 이상↑)
- 3) 대상 항공편 : 21,277대(전년 대비 145% ↑)
- 4) 조정이륙시간(CTOT) 준수율 : 62%(전년 대비 55%p ↑)
- 5) 지연을 16% 감소

* (Calculated Take-Off Time) 흐름관리 조치에 따라 통제센터에서 재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륙가능시간

** 승객 1명의 1분당 경제적 가치 기준 환산금액(Airlines for America 참조)



◆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란?

기존 '관제'만으로 항공교통을 처리하던 개념을 확대하여 국가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정보분석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항공교통량 관리 개념으로, 항공교통관제 수용량과 수요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통제(CTOT발부, 지상정지(GS) 등)를 통해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기여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단축항공로 활성화 효과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내 17개 단축항공로* 이용을 활성화하여, 2019년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1) 단축항공로 이용 항공기 : 247,767대(전체교통량의 30%)
- 2) 단축거리 : 약 160만 마일(편당 1.94마일)
- 3) 유류절감 : 약 116억
- 4) 환경보호 : CO₂ 약 3천만kg 감축(나무 600만 그루 대체효과)

* (단축항공로) 임시항공로로서 공역통제 기관 간 합의하 관제지시로 운영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ICAO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ICAO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세계 각 국의 항공 관련 규제, 방역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19 대응&회복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실적, 수요예측, 코로나19 대응지침 마련 등 지원 필요 부문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tform (<https://www.icao.int/covid/Pages>)

<ICAO 코로나19 대응&회복 플랫폼>

▶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코로나19 관련 대응 활동 진행

1) 보건 및 안전 제안 (Health and Safety Advice)

공중보건위기 대응 협력프로그램 '민간항공 공중보건 이벤트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력 협정(CAPSCA)'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APSCA에서는 항공의학 및 준비계획에 관한 지역세미나, 국제항공의과학회의 ICAO 교육세션 운영, 논문발표 등 의학적·학술적 측면에서 활동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사 감염병 발발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ICAO CAPSCA 2020.6 (<https://www.icao.int/safety/CAPSCA/>)

<ICAO CAPSCA의 파트너>

*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대표로 2020년 7월부터 참여

2) 코로나19 안전 운영 방침 (COVID-19 Operational Measures)

최소한의 항공안전 및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사태 관련 국제기준과의 차이점(CCRD)'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약국이 ICAO 부속서 제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관련 규제를 불가피하게 완화하는 경우, 체약국의 이행사항 변동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여객 운송 활성화 방침
(Passenger Facilitation Measures)

코로나19 관련 **항공운송산업의 각 키 플레이어**(정부, 항공사, 공항 운영자, 국민 등)가 알아두어야 할 **ICAO의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정보, 기타 정보**를 간략한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경제 분석 및 수요 예측
(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s)

여객·화물의 운송 실적, 코로나19의 영향요인 등을 반영한 **항공수요 예측** 등 항공 분야의 관련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2020년~2021년 1분기 예측 여객 운송 전망 자료**에서는 2021년 1분기에 회복세를 나타내는 최선의 경우 여객 운송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억 1천 2백만명 감소수준에 그치지만, 최악의 경우 5억 9천만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ICAO 코로나19 대응 페이지(<https://www.icao.int/sustainability/Pages/Economic-Impacts-of-COVID-19>)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송산업의 변화 예측, '20년~'21년 1분기>

* 노란색 역삼각형 : 항공운송산업의 회복이 V자형으로 나타나는 최상의 시나리오, 빨간색 역삼각형 : U자형 회복선을 그리며 성장추세선(L자형)으로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5) 항공회복 TF 위원회
(Council's Aviation Recovery Task Force)

항공회복 TF 위원회(CART)를 구성하여 **항공운송산업의 회복을 위한 권고 및 지침**과 수행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ICAO는 CART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지침과 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10개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글로벌 CART이행 로드맵**을 작성하여 ① CART보고서의 이행, ② 회원국에 대한 지원 및 조정, ③ 모니터링 및 보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복구를 위한 10가지 핵심원칙

- ① 인명보호, ② 하나의 팀으로 결속력 발휘, ③ 필수 연결성 보장, ④ 안전·보안·보건 관련 위협의 능동적 관리, ⑤ 항공안전 및 보안시스템과 항공보건 조치 수행, ⑥ 공신력 강화, ⑦ 산업 재개와 회복의 구별, ⑧ 항공운송을 돕기 위한 구제금융 전략, ⑨ 지속가능성 보장, ⑩ 회복력 향상을 위한 교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 안전역량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 9월말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현장의 운영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항공사·공항·관제시설 등에서 조치해야 하는 안전수칙과 국토부의 관리·감독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기내 방역 및 위생관리에 관한 안전수칙 시행

산소마스크 착용절차 보완 및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소독제의 사용·보관 관련 지침을 제공합니다.

②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별도 마련하여 항공사에 배포하고, 관제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여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기내 공기정화·방역, 객실 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

③ 운항 형태·규모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안전관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의 영업손실 만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기 좌석에 화물탑재, 객실좌석 제거 및 기내 화물탑재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운항규모 회복 항공사 대상으로 조종사·정비사 등 교육 훈련, 항공기 정비상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④ 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숙련도 유지 관리

조종사의 비행기량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사의 조종사 기량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하며,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해 모의관제훈련 실시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⑤ 항공기·공항시설 등 관리상태 진단

공항에 장기 주기되어 있는 비운항 항공기 및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 등 정비상태를 주기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Trend&Insight 항공·공항정책('20.9.)_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09.21.)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서비스 강화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배포

응급환자 이송비행 안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국민 디자인팀 참여, 찾아가는 현장조사 등 협업을 통해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소방청,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병원 7개 항공의료팀 등

지도에는 전국의 응급 의료기관(400여개), 환자 인계점(800여개), 지상장애물(송전탑, 선로 등)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주요기상 및 항공정보(비행제한사항 등) 등을 QR코드와 연계하여 닥터헬기 조종사가 안전하고 편리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난 항공기 수색·구조 협력 강화

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항공기 조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본부는 11월 중 유관기관(119구조본부, 대구공항출장소, 공군MCRG 등)과 항공기 수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12월에는 국가 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수색·구조 합동훈련 계획을 조정하는 등 국가수색·구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수색·구조 담당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인력이 항공관련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

공역 활용성 향상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역관련 법령, 영구·임시 공역의 설정절차,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구역 등의 정보를 담은 “알기쉬운 공역이야기”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문서24를 연계하여 공역사용 신청 원스톱서비스를 유통하며, 공역사용신청 진행상황 및 군 훈련 구역 사용계획 등의 정보를 문자알림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단지 인근에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등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항공교통본부에서는 매월 항공정보간행물(AIP) 주요정보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P의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여, 현재 항공사, 비행훈련원, 대학교 등 100여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 032-880-0244, ✉ aisd@korea.kr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항공지도를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항공지도 구매신청 절차, 납입금액, 항공지도 재고량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구입단계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판매 지도 : 세계항공도(20), 항공도(18), 항법도(18) 총3종, 4년 주기 제작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획기적 개선

흐름관리 웹포털/모바일 앱 개발

ATFM 실무기관 간 실시간 흐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이용객에게 항공기 출발시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흐름관리 웹포털/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21년 상반기 운영 예정입니다.

* 조정이륙시간(CTOT), 항공로 혼잡현황, 항공기상, 공항별 지연 정보 등
현재 기술적 측면에서 웹기반·공간정보 기술, 시스템 연계(ATFMS, SWM 등) 반영, 관련적 측면에서 관계자 의견수렴 및 데이터 품질 보장, 정책적 측면에서 차세대 흐름관리 운영체계 발전방향을 담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앱 개발 중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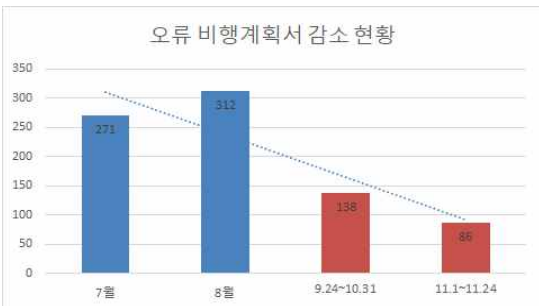
빅데이터 활용 비행자료 무결성 관리

오류 비행계획서 사전탐지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행자료 오류를 62%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오류 비행계획서 사전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8월 중 오류 비행자료를 1,195건 탐지하였습니다. 이에 오류유형, 항공사(국외 항공사가 94% 차지) 등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항공사에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항공사 피드백 이후 10~11월 중 오류율이 62%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사가 규정 맞는 정확한 비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행자료 무결성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절차 개선으로 효율 제고

성과기반 항공교통흐름관리 체계 구축

지난 2년간('18~'19년)의 흐름관리 업무 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2019 항공교통 성과보고서'를 최초 발간·배포하였고, 앞으로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ICAO에서 권고하는 핵심성과지표(19개)를 준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ATFM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였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19년 5개, '20년 9개, '21년 17개, '22년 19개로 확대 예정)

* 출발정시성, 도착정시성, 출발편 추가 지상주행 시간, CTOT 준수율 등 이를 통해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의 가시적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정보 관리체계 일원화

항공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작 중입니다.

기존 항공교통본부 및 각 지방항공청에서 분산적으로 관리하던 항공정보 데이터(공항, 비행절차, 장애물 등 관련자료)를 항공교통본부에서 일괄 확보·검증하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내 별도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특정 자료를 대분류, 소분류, 정의, 품질기준(정확성, 상세도, 측정방법) 등 항목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정보 목록

이를 통해 업무효율과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여 항공정보 품질이 개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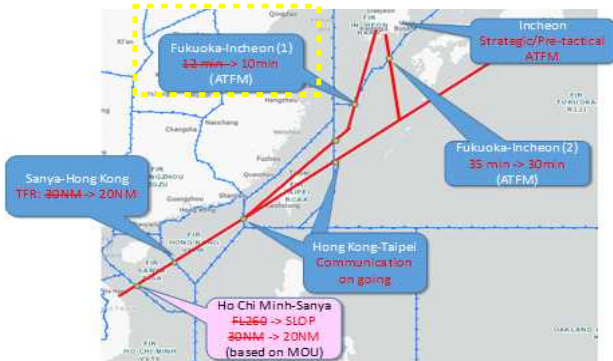
국제협력을 통한 항공교통 흐름관리 선도

동남아 협력으로 원활한 흐름관리

항공교통본부는 ICAO 제10차 아태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 위원회('20.5.)에 참석하여 동남아 국가(홍콩, 대만 등) 간 협력을 통해 한국발 다낭행 항공편 대상 흐름관리 제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접 비행정보구역 간 항적 분리치를 기존 12분→10분으로 축소하여 공역 수용량 및 항공 운항 효율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 국적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조정 등을 검토하여 사전 흐름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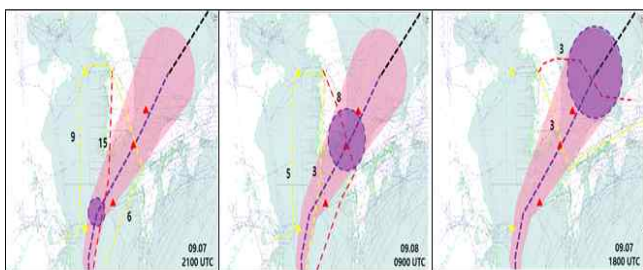
〈다낭행 제한사항 완화를 위한 국가별 조치사항〉

자연재난 대비 우회항공로 구축·운영

항공교통본부는 제9차 한·중·일 NARAHG 회의('19.12.)에서 '위험기상 대비 우회항로 및 고도배정 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조 절차' 수립을 제안하였고, 한·중·일 흐름관리 기관 간 TF팀을 구성하여 우회항공로 구축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본부는 과거 태풍으로 인한 국내 주요공항(인천·부산) 영향과 동남아행 항공기들의 우회 경로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태풍 경로 별 우회항공로를 도출하여 한·중·일 간 공유 및 태풍 발생 대비 우회항공로를 사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라색 : 태풍 위치, 붉은색 : 기존항공로, 노란색 : 우회항공로(항공교통본부 제시), 숫자 : 항공기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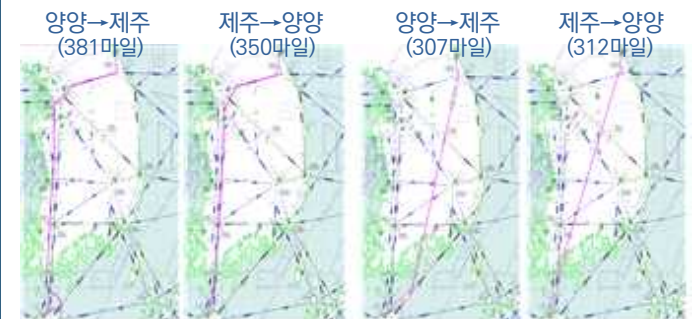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효율'과 '안전' 동시 추구

단축항공로 운용 활성화

항공교통본부는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부응하고 항공기의 운항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군과 협의하여 제주-양양공항 간 단축비행로를 추가 발굴('20.3.)하였습니다.

현재 공군과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총 18개 구간의 단축항공로 대상으로 군과 실시간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년까지 단축항공로를 추가 신설 예정이며(18→20개), 단축항공로 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절감 등 항공교통 경제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비행경로〉

〈단축 비행경로〉

협력적의사결정으로 위험기상 등 자연재해 대응

태풍 등 위험기상이 예상될 경우 유관기관*간 협력적의사결정(CDM)을 통해 정보공유, 사전 위기단계별 대응책 논의 등 항공 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각 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공군, 인천/한국공항공사, 각 항공사 등 현재 통제센터에는 위험기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 군 공역 사용 협조 등을 위해 기상청과 공군의 전담인력이 합동근무 중입니다.

이를 통해 태풍 피크 시간대 항공기의 스케줄 조정, 항공로 운항 우회 등을 항공사에 사전 권고, 장거리 노선 입항 항공기 사전 흐름관리 조치 등 공역 혼잡 예방 및 경제적 효과(연료절약, 이용객 대기시간 축소 등)를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항공교통관리>

항공교통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중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자 해당시간대 항공교통관리를 준비 중입니다.

다가오는 '21년도 대학수능시험(12월3일)에 대비하여 해당시간 운항예정 항공기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예정입니다.

2019년 시행한 '20년도 대학수능시험에는 입항 항공기 총31대, 출항 항공기 총66대에 대한 항공교통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 '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음통제 시행 개요

- ① 일시 : '19.11.14.(목), 13:10 ~ 13:35
- ② 장소 :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 (응시인원 : 548,734명)

◆ 주요 조치 내용

1) 항공고시보(NOTAM) 발행으로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영어듣기평가 시행시간(13:10~13:35) 동안 입·출항 항공기 운항제한 공역을 설정하는 항공고시보(NOTAM) 발행

- ① 제한시간 : 13:05~13:40(영어듣기평가 시간 전후 5분씩 확대)
- ② 제한범위 : 해안선 3NM 이내, 고도 10,000ft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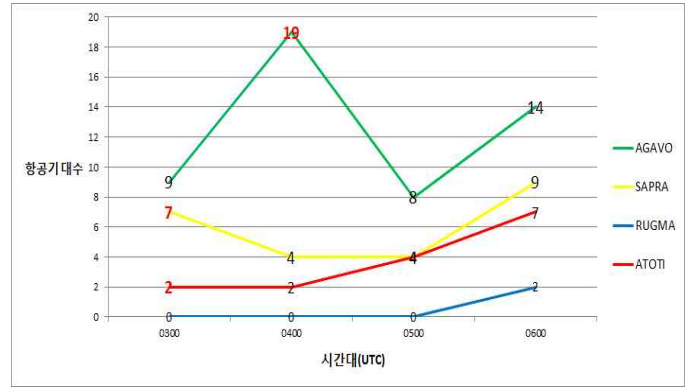
2) 공항별 출·도착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 및 체공(대기) 지시

해당시간대 국내 공항에 입·출항 예정 항공기 수를 사전파악 하여 각 공항별, 항공로별 흐름관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 ① (출발 항공기) 공항별 지상이동 시간을 감안, 항공기 이륙 가능시간을 분석하여 출발 시간 조정
- ② (도착 항공기) 국내 공항에 해당시간대를 회피하여 입항하도록 사전 운항스케줄 조정 및 불가피 시 체공 등을 항공사에 요청

③ 이·착륙 전면 통제에 따른 장거리 노선 항공기의 체공 공역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과 군 공역 사용을 위한 협의 실시

④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천FIR) 내 진입 교통량 제한을 위해 해당 통과지점(중국 AGAVO, 일본 SAPRA, 동남아 ATOTI 등) 기준으로 흐름관리 제한사항 발부 등 인접국과 협력



<해당 시간대별 인천공항발 픽스 통과 교통량>

3) 운항제한 해제 후 조치

공중 대기 중인 항공기와 공항에서 운항을 재개하는 항공기의 운항 집중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 ① (국제선) 영향분석에 따라 입항항공기 조치로 발부된 제한사항을 중·일궜 노선 교통량에 대해 16:00까지 적용하여 교통량 분산 유도
- ② (국내선) 김포·제주행 지연 항공기와 기존 운항예정 항공기의 교통량 조정을 위해 15:00까지 거리분리(MIT) 등을 통한 흐름관리 조치

*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김포·제주공항 교통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타 공항 교통량과의 자연율 균형을 유지

영공통과허가업무 규제 완화로 고객 편의 증진!

항공교통본부의 『영공통과허가 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항공기는 경미한 허가변경 사항 * 발생 시 추가 변경허가 신청 없이 '통보'만으로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경우, 항공기 사용자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천FIR) 진입 2시간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영공통과허가 담당자에게 통보 후 기존 허가번호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 ① 1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입항 시간 변경 (국가항공기의 경우 1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 ② 출발공항 또는 목적 공항의 변경,
- ③ 진입 지점, 항공로 또는 이탈지점의 변경

항공교통본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공교통본부의 서비스에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 소통창구 :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
국민생각나눔(www.molit.go.kr)

